

십자가의 능력인 주님의 내적인 성향

마가복음 8:34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진 일도 중요 하지만 그 일이 귀한 가치를 갖게 된 근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 나는데 있어서 주님의 내적인 성향을 깊이 이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 하셨는데 자신이 그런 삶을 사셨다.

주님이 십자가와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심어주고자 하셨던 사상은 바로 주님과의 교제요 또한 주님과의 연합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교제와 연합이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고난과 박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성향에 있다는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여러번 반복하신 사실에서 잘 나타난다. 주님은 그 지상 생애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셨다. 삼손처럼 한두 번의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은 많이 있다. 그러나 일생을 변함 없이 털끝만큼 죄도 짓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골고다에서 눈에 보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은 바로 그의 전 생애를 이끌고 간 내적인 마음의 성향의 한 표현이다.

그러면 주 예수님께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였을까? 그 일이 과연 주님께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했을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마음의 성향에 변화가 일어났고, 또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께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에 죄의 악함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죄가 사람을 장악하여 끔찍한 횡포를 드러낸다.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사람에게 대한 심판을 가져오게 한다. 다시 말하면 죄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인간의 책임과 권세를 가지고 인간을 지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죄의 권세를 처리되어야 하고 죄의 책임을 면제받아야 했다.

예수님은 먼저 죄의 권세를 무로 만드셔야 했다. 그 일은 자기 자신으로만 가능했다. 그 일을 위하여 그는 죄악 된 사람으로 가장 가까운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곧 육체의 연약함을 그대로 지니시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혹을 받으실 수 있는 완전한 가능성을 지닌 상태로 오신 것이다. 그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 즉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보고 들으시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행하거나 말씀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자신의 목숨과 의지를 버리셔야 했다. 그의 공생애의 시초에 광야에서 시험받으실 때, 그 생애의 마지막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러내신 성향이 특별하게 드러난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공생애의 초에 그가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순복 하심으로써 그 시험을 이기셨다. 그 생애의 마지막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받아 들이셨다. 그는 자기 자신과 그 목숨까지 드리셨다. 자기를 부인 하셨고 순종을 배우셔서 온전해지셨다. 그는 친히 죄의 권세에 대해 완전한 승리를 얻으셨다. 그리하여 그는 악한 자가 자기를 책할 것이 전혀 없음을 입증하셨다.

십자가상의 죽으심은 죄의 권세에 대하여 그가 친히 거두신 승리의 가장 영광스러운 마지막 성취였다. 십자가 상의 속죄의 죽으심이 가치가 있는 것은 죄의 권세를 친히 무력화 시키신 분으로서의 죽으심이기 때문이다.

죄에 대한 책임이 제거되기 위하여서는 화목이 필요했다. 화목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은 죽으심을 당하셔야 되었고 그 죽음 속에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당하시고 견디셔야 했다.

죄에 대한 책임과 죄에 대한 저주를 제거하는 주님의 능력은 단순히 그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에만 기인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주님이, 아버지의 의를 유지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를 향한 기꺼운 순종으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다. 십자가에 능력을 가져다 준 것은 이러한 주님의 자기 희생의 성향, 자의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는 그의 성향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 하신다.

빌립보서 2:8-9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 이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히브리서 5:8-9

8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서 죄에 대한 책임을 제거 하시고 그리하여 죄의 권세와 책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신 것은 그가 자신의 생애에서 먼저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정복 하셨기 때문인 것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자기 목숨을 희생 시키며 드리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표적일 것이다.

이 순종의 자세가, 이 자기 자신을 순종 시키는 자세가 십자가에게 무한한 가치를 주었다. 또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에게도 가치를 주었다. 그 피는 사랑하시는 아들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증거이다. 피를 드리고 흘리시기로,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죄를 범하는 대신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로, 작정하신 성향의 증거이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자기 목숨까지 버리고 순종하셨다는 증거이다. 그 피는 하나님과 그의 뜻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번쩍였으며, 그 피속에 있는 생명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순종이었다.

십자가의 피의 능력의 비밀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내적인 성향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도 자기를 희생시키지 않고서는 그 피의 생명과 능력을 받을 수도 누릴 수도 없다.

그리하여 우리가 행위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과 일치하며 그분을 닮게 되고 자기를 희생시키는 일을 우리 삶의 최고 법칙으로, 가장 복된 법칙으로 삼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자기희생밖에 없다는 사실을 체험으로 보고 알게 해 준다.